

# III

## 1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의 형성

###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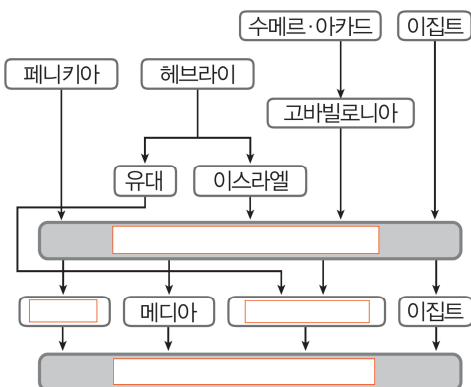
#### 01. 100000의 서아시아 최초 통일

<b>성립과 발전</b>	• 아슈르바니팔 왕,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앞세워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 통일(기원전 7세기)
<b>통치</b>	• 수도 20000(Nineveh)에 왕립 도서관 건립 • 중앙 집권 통치 → 도로 정비, 정복지에 총독 파견
<b>멸망</b>	• 피지배 민족을 3000적으로 통치 → 4000000와 메디아 연합군의 20000 점령 → 하란(Harran) 함락으로 멸망(기원전 609)

#### 02. 500000 왕조 페르시아의 성립과 발전

<b>키루스 2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6세기 제국의 기틀 마련</li> <li>• 60000의 수도인 사르디스 함락, 70000000 정복 등 서아시아 재통일</li> <li>• 원통 칙령 → 8000 정책(피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받는 대신 그들의 전통과 신앙 존중)</li> </ul>
<b>캄비세스 2세</b>	• 이집트 정복
<b>다리오스 1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에 총독(사트라프) 파견 → 감찰관('왕의 눈', '왕의 귀')을 통해 감시</li> <li>• 도로(90000) 건설과 역참제 정비, 화폐와 도량형 정비</li> </ul> <p>9'000'은 1000에서 사르디스를 연결한 도로로, 전시에는 군사 수송, 평시에는 상업 용도로 이용되었다.</p>
<b>종교·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000 신봉</li> </ul> <p>세상을 선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어둠과 악의 신인 아리만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보았고, 선한 신의 승리를 믿어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하였다. 말세에는 심판을 수행하는 구원자가 등장한다. 이외에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죽음과 함께 개인적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은 사람들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악한 존재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0000 건설</li> </ul> <p>다리오스 1세 때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도시이다. 이 도시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에는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등의 여러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p>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0 세계와의 전쟁(기원전 492~기원전 479)에서 패배</li> <li>• 지방 총독들의 반란</li> <li>• 4000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등 50000000의 침공으로 멸망(기원전 331)</li> </ul>

####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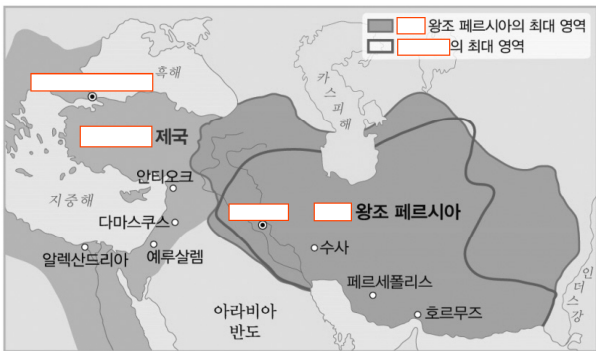


03. ⑬□□□□의 발전과 쇠퇴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⑬□□□□ 왕조의 쇠퇴를 틈타 ⑬□□□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아르사케스 1세, 기원전 247)</li> <li>수도 ⑭□□□□</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로데스 2세(재위 기원전 57~기원전 38), 로마 크라수스의 군대 격퇴(카레 전투, 기원전 53)</li> <li>로마와 인도(⑮□□□ 왕조), 중국(한 왕조)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 장악 → ⑯□□□ 무역으로 변영</li> <li>정복지 주민들을 관대하게 통치</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 → 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226)</li> </ul>

04. ⑱□□ 왕조 페르시아

<b>건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⑲□□□□□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아르다시르 1세, 224)</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⑲□□□□□에 도움</li> <li>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㉓□□□□강 유역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동서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li> <li>사푸르 1세 : 로마와 경쟁(㉔□□□□ 전투에서 군인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잡음, 260)</li> <li>호스로 1세(재위 531~579) : 전성기 구가, ㉕□□□□ 제국과 경쟁</li> </ul>
<b>종교·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의 국교화, ㉖□□□□ 등장</li> <li>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 등이 유럽과 동아시아까지 전파됨</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㉕□□□□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내분</li> <li>정통 칼리프 우마르 휘하 군대와와의 까디시야 전투 패배(636) → ㉗□□□□ 함락(637) → 사한샤 야즈 데게르드 3세의 동쪽 도주·암살(651) → 페르시아의 ㉘□□□□ 세계 편입(651)</li> </ul>



▲ 로마 황제를 굴복시킨 사푸르 1세



# III 1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의 형성

## 2 이슬람 세계의 형성

### 01. 이슬람교 성립 이전의 아라비아 사회

<b>6세기 이전</b>	•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유목과 농경에 종사
<b>6세기 이후</b>	• ①□□ □□ 페르시아와 ②□□□□ 제국의 갈등 고조 →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교역로 활성화 → ③□□와 메디나 등 홍해 연안 도시 번성 • 빈부 격차 심화, 부족 간의 대립 심화

### 02. 이슬람교의 성립과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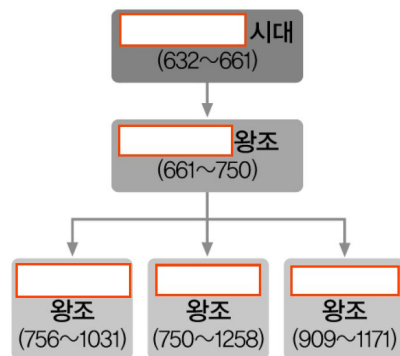
<b>성립</b>	•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알라를 ④□□□으로 신봉하며 창시
<b>특징</b>	• 우상 숭배 배경,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서 ⑤□□하다고 주장
<b>박해</b>	• ⑥□□의 보수적인 귀족들의 박해 → 무함마드가 ⑥□□에서 메디나로 이동(⑥□□□, 622)
<b>전파</b>	• 메디나에서 교세 확장 → 무함마드가 ⑦□□ 장악, ⑦□□□반도의 대부분 점령

## 3 이슬람 제국의 발전

### 01. 정통 ⑧□□□ 시대(632~661)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 ⑧□□□ 선출</li> <li>• ①아부 바크르(재위 632~634) → ②우마르(재위 634~644) → ③우스만(재위 644~656) → ④알리(재위 656~661)</li> </ul> <p>아라비아반도에서 무슬림의 정복 활동으로 탄생한 대제국의 통치자는 ⑧□□□, 즉 믿는 자들의 지도자이자 신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대리인이었다. 무함마드 사후 최초의 ⑧□□□로 선출된 인물은 무함마드의 오랜 동료이자 성인 남성 중 가장 먼저 이슬람교로 개종한 아부 바크르였다. 아부 바크르의 뒤를 이어 우마르, 우스만, 알리가 ⑧□□□로 선출되었다. 이들 모두는 예언자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이자 무슬림 공동체의 원로였다.</p>
<b>발전</b>	• ⑨□□□ 정복, ⑩□□ □□ 페르시아를 멸망시킴

### ● 이슬람 세계의 성장



02. ⑩□□□□ 왕조(661~750)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대 ⑧□□□ 알리 피살 → ①□□□□가 ⑧□□□가 됨, ⑩□□□□ 가문이 ⑧□□□ 세습</li> <li>카르발라의 참극(680) → 시아파와 ⑫□□□의 대립</li> </ul>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⑫□□□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슬람교도라면 누구나 ⑧□□□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시아파는 알리와 그 후손만을 무함마드의 정통성 있는 후계자로 여겼다.</p>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⑬□□□ 우월주의 정책</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⑭□□□□□에 도움</li> <li>인더스강 유역에서 북아프리카와 ⑮□□□□반도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li> </ul> <p>① ~ ④는 시간순</p> <p>① 마르즈 라히트 전투에서 승리하여 시리아 일대의 지배권을 확립함.</p> <p>② 카르타고를 점령하여 북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p> <p>③ 베르베르인을 제압하여 탕헤르 일대를 차지함.</p> <p>④ 마슬라마가 이끄는 군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함.</p>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⑯□□□·□□□□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732)</li> <li>⑰□□□ 가문에 멸망</li> </ul>

03. ⑱□□□ 왕조(750~1258)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부 알 아바스가 ⑱□□□□ 왕조에 불만을 가진 세력(비아랍인, ⑲□□□□)의 도움으로 건국</li> </ul>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⑲□□□□의 특권 폐지 →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과의 ⑲□□□□ 전투(751) 승리 → 동서 무역의 주도권 장악</li> <li>알 만수르(재위 754~775), ⑳□□□□(‘메디나트 알 살람’)에 도움</li> <li>알 마문(재위 813~833), 지혜의 집(도서관이자 학문 연구와 번역 기관) 건립</li> </ul>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크레타를 정복한 자가 황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퍼질 정도로 크레타 탈환은 ㉑□□□□ 제국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당시 크레타는 무슬림들의 수중에 있었는데, 이들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던 ㉒□□□□ 왕조의 영향을 받는 한편, ㉒□□□□ 왕조의 북아프리카 영토를 차지한 신흥 왕조 파티마와도 교류하고 있었다. …… 수만 명으로 구성된 ㉑□□□□ 제국의 원정대가 크레타 북부 해안의 요새 도시 칸닥스를 함락시키자 크레타의 무슬림들은 항복하였다. 원정대는 귀국하여 큰 환대를 받았고, 그 사령관 포카스는 예언대로 훗날 황위를 잇게 되었다.</p>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 세력의 성장, 이민족의 침입 → 셀주크 튀르크에 정치적 실권(㉓□□ 칭호) 부여</li> </ul>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⑳□□□□의 동의를 받아 지배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초기에 ㉓□□□□가 칭호를 하사하였으나, 점차 자처하는 지배자가 늘어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㉑□□□의 침략으로 멸망</li> </ul>

04. 후우마이야 왕조(756~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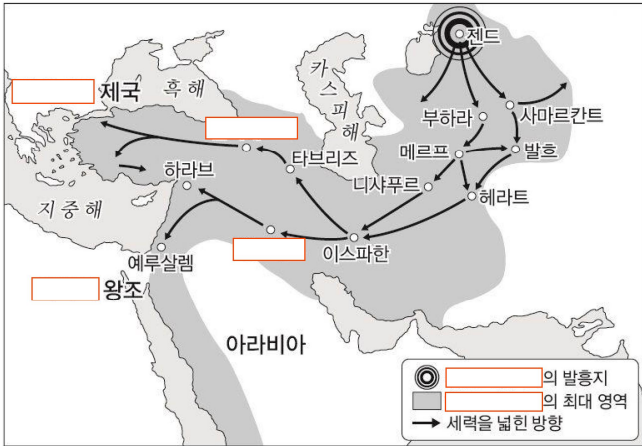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인 압둘 라만이 ㉒□□□□반도에 건국(756)</li> <li>㉒□□□□□에 도움</li> </ul>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세기 전반에 ㉓□□□□ 선언(알 하잠 2세)</li> <li>유럽에 이슬람 문화 전파(㉒□□□□ 메스키타)</li> </ul>

05. 10세기 왕조(909~1171)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세기 10세기 계열 분파인 이스마일파 압둘라 알 마흐디가 북서부 튀니지에 건국</li> <li>10세기 천도(969)</li> </ul>
<b>통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세기 10세기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10세기의 칭호 사용</li> <li>알 아즈하르 대학 설립(알 아즈하르 모스크 기반, 카이로, 970년경)</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유브 왕조에 멸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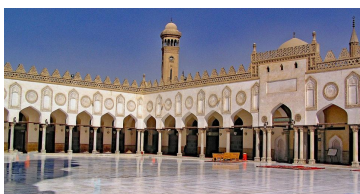
06. 11세기 왕조(1037~1242)

<b>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 이슬람 세계에서 용병 등으로 활약, 이슬람교로 개종</li> <li>단다나칸 전투[호라산 지역, 가즈니 왕조(962~1186)에 승리, 1040년경]</li> <li>투그릴 베그가 11세기에 입성하여 11세기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11세기의 칭호를 수여받고 정치적 실권을 위임받음(1055)</li> </ul>
<b>발전</b>	<p>이 시기 수니파인 11세기 왕조는 시아파인 부와이 왕조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였다. 부와이 왕조의 압박에 지친 11세기 왕조의 칼리프는 투그릴 베그에게 부와이 왕조의 무리를 차단해 달라는 도움을 요청했다. 투그릴 베그는 칼리프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11세기로 들어가 부와이 왕조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하고 칼리프를 구출해 주었다. 1055년의 일이다. 혼란과 불안 속에 있던 11세기는 안정과 평화의 도시가 되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이희철, 『튀르크인 이야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력 확대 → 12세기 제국 압박 → 12세기 전쟁 발발</li> <li>지중해 동부에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역까지 영토 확장</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지속된 전쟁 및 왕조의 분열 → 멸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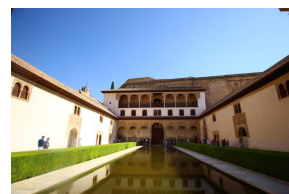


07. 그라나다 왕국(1231~1492)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스르 왕조 무함마드 1세(재위 1232~1273)의 창립</li> <li>알함브라 궁전 건립(1323)</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Reconquista, 718~1492)으로 멸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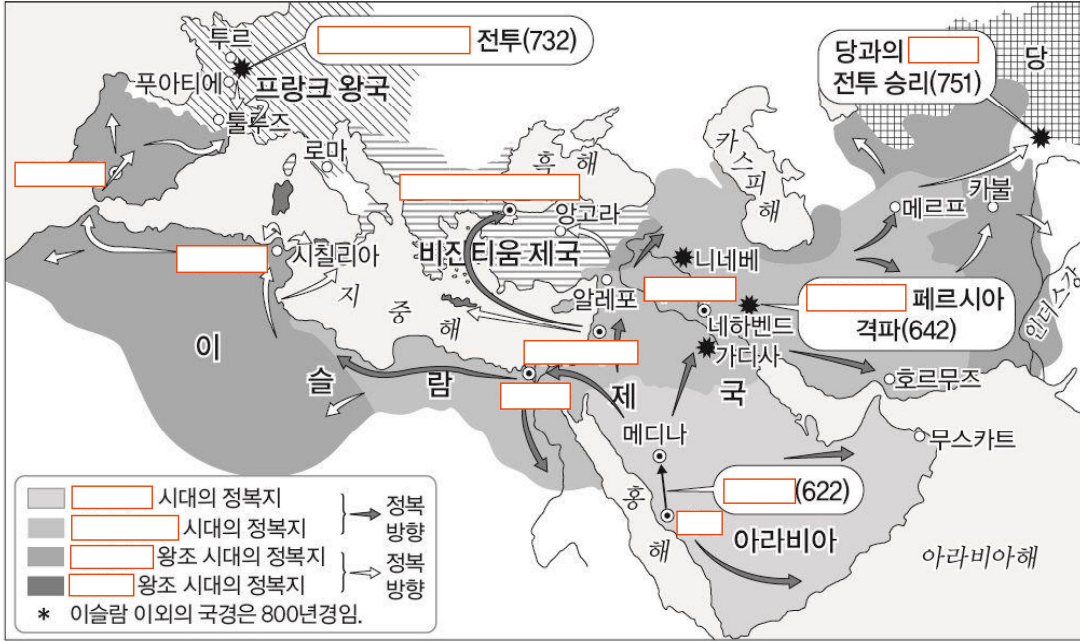


▲ 알 아즈하르 대학교



▲ 알함브라 궁전

● 이슬람 제국의 변천



4 이슬람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01. 사회와 경제

<b>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 가르침이 일상생활 지배</li> <li>5행의 실천 중시(신앙 고백(샤하다), 메카를 향한 예배(살라트), 라마단 기간의 금식(사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자카트), 메카 순례(하지))</li> <li>② □□□□를 거두는 대신 피지배 민족의 종교 인정</li> <li>일부다처 허용,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식생활(하람)</li> </ul>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로운 상업 활동 보장 → 상인 성장, 교역로를 중심으로 도시 발달</li> <li>이슬람 상인들은 낙타를 이용해 아프리카 내륙과 중국까지 왕래, 동아프리카·인도·동남아시아·중국에 이르는 ③ □□□□ 교역 주도(다우선 이용)</li> </ul>

02. 문화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서 문화 융합 : 정복지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융합</li> <li>문화권의 공통 요소 : 이슬람교, ④ □□□□</li> </ul>
<b>학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연구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 발달</li> <li>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아랍어로 번역됨 → 스킴라 철학 성립에 영향</li> <li>이븐 할둔(1332~1406), 『역사 서설』</li> </ul>
<b>문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라비안나이트』(여러 지역의 설화를 모음)</li> <li>이븐 바투타(1304~1368), 『여행기』</li> </ul>
<b>건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둥근 지붕(돔)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⑤ □□□□ 양식과 ⑥ □□□□□□ 무늬 사용</li> </ul>
<b>자연 과학의 발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학(인도 숫자를 도입하여 아라비아 숫자 완성), 화학(연금술 연구 등), 천문 지식과 역법 발달</li> <li>이븐 시나(980~1037), 『의학정전(의학전범)』 저술</li> </ul>
<b>의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서 문화의 융합, 유럽의 르네상스 등에 영향</li> <li>중국의 제지법·나침반·화약 등을 유럽에 전파 → 유럽의 근대 과학 성립에 영향</li> </ul>

5 이슬람 세계의 팽창

01. 1111 제국(1299~1922)의 발전

<p><b>성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세기 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 세력이 소아시아(111111) 지역에서 건국</li> </ul>
<p><b>발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예지트 1세(재위 1389~1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1반도 대부분 지배, 티무르 왕조와의 1111 전투 패배(1402)</li> </ul> </li> <li>111111 2세(재위 1451~14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복자, 111111 제국 정복(1453), 로마 황제 자처, 1111111111(이스탄불)를 수도로 삼음</li> </ul> </li> <li>1111 1세(재위 1512~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1 왕조와의 찰디란 전투 승리(1514)</li> <li>: 마르즈 다비크 전투(1516) 승리와 이집트의 1111 왕조(1250~1517) 정복 →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 장악 →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li> <li>: 아바스 왕조의 후손으로부터 칼리프 칭호 계승 → 술탄·칼리프제(정교일치) 확립</li> </ul> </li> <li>111111 1세(재위 1520~1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하치 전투에서 승리하며 111111 정복(1526), 1111 포위 공격·실패(1529), 111111 점령(1551)</li> <li>: 프레베자 해전(1538)에서 유럽의 연합 함대 격퇴 → 111111 교역에서 주도적 역할</li> <li>: 법전 편찬(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 정비, 입법자), 건축과 문학 및 회화 등 예술 분야 후원</li> </ul> </li> </ul> <div data-bbox="343 784 1444 1198">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셀림 2세(재위 1566~15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111 해전 패배(에스파냐 중심의 크리스티교 연합 함대, 1571) → 111111 제해권 상실</li> </ul> </li> </ul>
<p><b>통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111111(일종의 군사적 봉건제) 실시</li> <li>1111111111 제도를 통한 11111111와 관료 육성</li> </ul> <p>그들의 출신은 다양했다. 돈에 팔려 온 사람도 있었고 전쟁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도 있었다. 주로 1111반도 등지의 크리스티교 청소년들은 1111111111라는 제도를 통해 징발되었다. 이들은 이스탄불이나 부르사로 보내져 이슬람교도로 교육받았으며, 그 후 적성에 따라 군사적 혹은 행정적 직책을 부여받았다.</p>
<p><b>경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 교역의 교차로에 위치 →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영</li> </ul>
<p><b>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1111111111 남부 시 비이슬람교도의 신앙 인정)</li> <li>종교 공동체인 11111111 인정</li> </ul> <p>같은 종교로 이루어진 종교 공동체로 그리스 정교, 유대교 등이 각각의 11111111를 이루었다. 11111111 제국은 11111111에 종교적인 자유와 함께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였다.</p>
<p><b>문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 페르시아, 11111111 제국의 문화 융합</li> <li>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 발달</li> <li>술탄 아흐메드 사원(블루 모스크) 건립</li> </ul> <p>콘스탄티노폴리스에 건립된 이슬람 사원으로, 술탄 아흐메드 1세가 성 소피아 성당을 능가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푸른색 타일이 많이 사용되어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린다.</p>

02. ㉔□□□ 왕조(1370~1507)의 발전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가 ㉔□□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건국(1370)</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제국 건설</li> <li>①□□□ 제국 압박(㉔□□□ 전투, 1402), 명 원정 시도</li> <li>수도 ㉔□□□□□를 중심으로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li> <li>페르시아 문화와 튀르크 문화 융합</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사후(1405) 세력 약화</li> <li>: 후계자 자리를 두고 네 아들 간에 분쟁 발생 → 샤 루흐(재위 1409~1447)의 계승</li> <li>㉔□□□□□에게 멸망</li> </ul>

03. ㉔□□□ 왕조(1501~1736)의 발전

<b>성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1세(재위 1501~1524)</li> <li>: 이란 지역에서 건국, 전통적인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인 '샤' 사용</li> <li>: ㉔□□□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함</li> </ul>
<b>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니파 국가인 ①□□□ 제국과 대립</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의 술탄이 완충 지대에 위치한 돌카디르 왕조를 공격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맘루크 왕조의 술탄은 ㉔□□□와 연합 세력을 구축하였다. 당시 ㉔□□□는 ①□□□과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배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①□□□의 술탄은 포병과 소총 부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서 기병대를 앞세운 맘루크 왕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㉔□□□□□에 입성하였다. 뒤이어 ㉔□□□를 정복하여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진출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바스 1세(재위 1588~1629)</li> <li>: 수도 ㉔□□□□ 천도, 군사력 강화, 이맘 광장·이맘 모스크('왕의 모스크') 건설</li> </ul>
<b>쇠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 ㉔□□□□의 침입으로 멸망</li> </ul>

